

안타 15개 치고 3점... KIA 5연승 마감



SK와 시즌 첫 연장전서 12회말 3-4 끝내기 패
KIA, 상대 호수비에 득점 기회 번번이 무산
이민우 7이닝 3피안타 호투, 패배로 빛 바래

‘호랑이 군단’이 시즌 첫 연장전 승부 끝에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시즌 3차전에서 3-4 끝내기 패를 당했다. 6연승에 도전했던 KIA는 수비에 울고 웃으면서 SK전 위닝 시리즈에 만족해야 했다.
1초 KIA가 선취점을 가져갔다.
2사 2루에서 우전 안타로 출루한 최형우가 나지완의 중전 안타와 유민상의 우전 안타로 득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KIA가 1회말 실책으로 바로 리드를 내줬다.
KIA 선발 이민우가 1사에서 몸에 맞는 볼로 정진기를 내보낸 뒤 우전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면서, 1사 만루에 몰렸다.
이어 남태평양의 타석 때 3루수 나주환이 어려운 바운드의 타구를 잘 잡아 5-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2루수 황윤호가 급하게 1루로 뿌린 공을 유민상이 잡지 못하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이후 KIA가 매 이닝 출루하며 공세를 퍼부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상대의 호수비가 흐름을 끊었다.
3회 2사에서 최형우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나지완-유민상-백용환의 3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2-2. 최원준도 외야 멀리 공을 보냈지만 좌익수 정진기가 공을 낚아챘다.
6회에도 최원준의 안타성 타구를 2루수 김창평이 날아올라 직선타로 둔갑시켰다. 이 수비 이후 어깨 통증을 호소한 김창평을 대신해 들어온 김성현과 3루수 정현도 잇달아 좋은 수비를 하며 KIA의 득점을 막았다.
상대 내야진의 호수비 퍼레이드로 KIA는 9회 2사까지 13개의 안타를 치고도 단 2점을 뽑는 데 그쳤다. 그리고 2-3 패배를 앞두고 있던 순간 SK 1루수 로맥의 큰 실수가 나왔다.
최형우의 땅볼 타구를 잡은 로맥이 베이스 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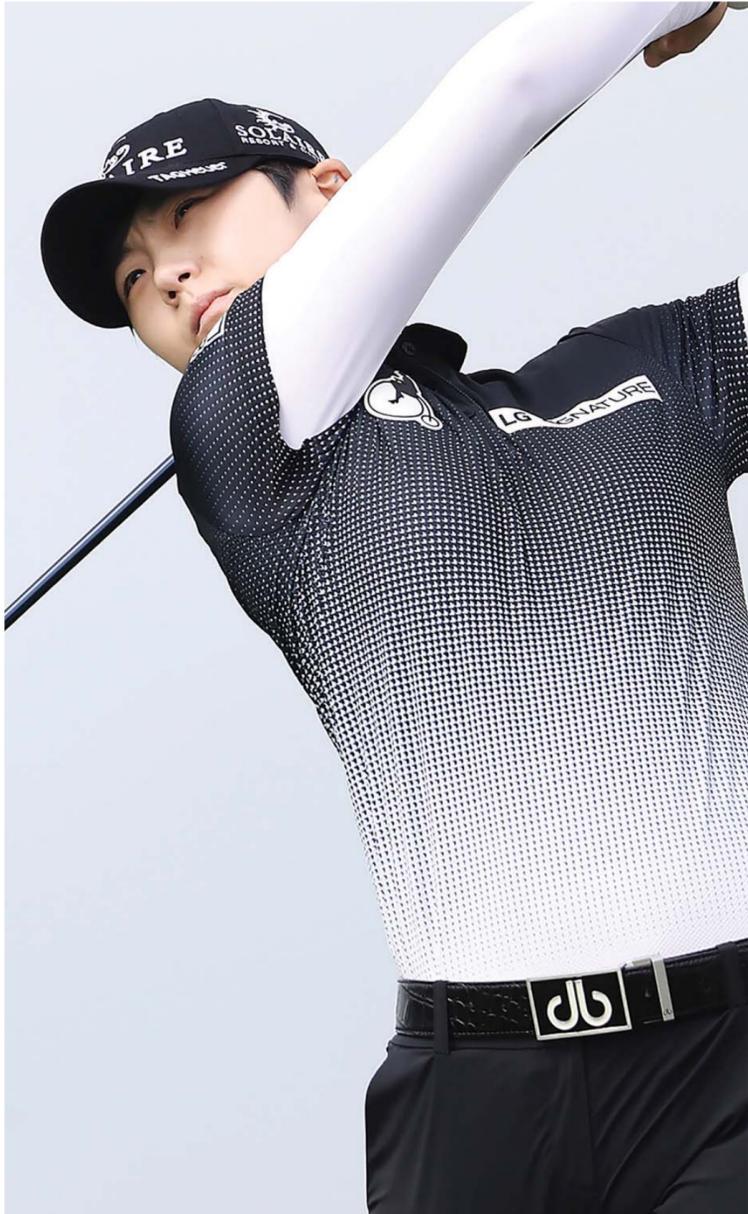
를 들이쳐 투수 하재훈에게 악송구를 했다. 최형우는 2루까지 향했고, 나지완의 좌익수 키 넘는 타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8회 출격한 전상현이 9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KIA가 시즌 첫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삼자범퇴로 10회를 마무리한 두 팀이 11회 1사에서 기회를 잡았다. KIA는 박찬호가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터커의 중견수 플라이와 최형우의 삼진이 기록됐다. SK도 정진기의 좌중간 안타 뒤 로맥의 내야 안타로 2사 1-2루를 만들었지만, KIA 마무리 문경찬이 남태평양에게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하지만 12회 결국 승부가 갈렸다.
KIA가 2사에서 백용환의 볼넷으로 마지막 볼씨를 살렸고, 김선빈의 좌전 안타까지 이어졌다. 발 빠른 야수를 소진한 KIA는 투수 김현준을 백

용환의 대주자로 투입해 역전극을 노렸다. 투수 정영일의 폭투까지 나오면서 2사 2-3루까지 만들었지만 나주환의 타구가 내야를 뚫지 못했다.
무승부를 목표로 KIA가 마지막 수비에 들어갔지만 아웃 카운트 하나가 부족했다.
12회 등판한 고영창이 첫 타자 김장민을 우익수 플라이로 잘 처리했지만 대타 오준혁과 정의운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정현의 타구가 우익수 앞으로 바로 향하면서 투 아웃이 됐다.
KIA가 전날 좋은 피칭을 보여준 홍건희를 마운드에 올렸지만 노수광의 타구가 3루수 옆을 빠져 나가면서 끝내기 안타가 되고 말았다.
KIA가 전날 좋은 피칭을 보여준 홍건희를 마운드에 올렸지만 노수광의 타구가 3루수 옆을 빠져 나가면서 끝내기 안타가 되고 말았다.
5연승의 시작점이었던 선발 이민우는 이날도 7이닝 3피안타 2볼넷 2탈삼진 3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지만, 아쉽게 팀의 끝내기 패를 지켜보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쫓기했던 맞대결, 사이좋은 무승부



고진영



박성현

고진영·박성현 ‘현대카드 슈퍼매치’
17번 홀에서 박성현 대역전
고진영은 18번 홀 재반격
상금 1억원 절반씩 나눠 기부

고진영(25)과 박성현(27)이 ‘현대카드 슈퍼매치 고진영 vs 박성현’ 경기에서 치열한 명승부를 벌인 끝에 사이좋은 무승부를 기록했다.
박성현과 고진영은 24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고진영 vs 박성현’ 경기에서 총상금 1억원을 딱 절반인 5000만원씩 나눠 갖고 비겼다.
이 경기는 홀마다 걸린 상금을 해당 홀의 승자가

가져가는 방식의 ‘스킨스 게임’으로 진행됐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3위 박성현의 ‘일대일 맞대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주요 투어가 중단된 상황에서 많은 골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상 미국)의 맞대결과 함께 세계적인 ‘골프 빅 매치’가 성사됐다.
‘소문난 잔치’답게 경기는 마지막 18번 홀(파4)이 끝남과 동시에 무승부가 확정되는 치열한 접전으로 펼쳐졌다.
박성현은 13번 홀(파4)까지 상금 1200만원을 획득, 4000만원의 고진영에게 큰 액수 차이로 밀려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14, 15번 홀을 연달아 따낸 박성현은 두 홀에 걸린 상금 1200만원을 만회하며 추격에 나섰

다.
16번 홀(파5)을 비기면서 17번 홀(파3)에 상금 1600만원이 물리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17번 홀을 고진영이 상금 1000만원을 추가하는 ‘찬스 홀’로 지정하면서 이 홀에서만 2600만원이 걸렸다.
만일 이 홀을 고진영이 가져간다면 곧바로 승리를 확정할 수 있고, 반대로 박성현이 따내면 단숨에 역전이 가능한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두 선수 모두 티샷을 그린 위로 보냈지만 거리는 5~6m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먼저 퍼트에 나선 고진영은 버디를 잡지 못했으나, 경기 내내 끌려다니던 박성현의 버디 퍼트가 극적으로 홀 안으로 사라지면서 승부는 5000만원 대 4000만원으로 박성현이 앞서게 됐다.
이제 남은 홀은 상금 1000만원이 걸린 18번 홀

뿐이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퍼트 거리가 박성현이 좀 더 길었고, 먼저 퍼트에 나선 박성현의 버디 퍼트는 다소 짧았다.
역시 약 5m 정도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남긴 고진영이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둘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상금을 500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날 두 선수가 얻은 상금은 대회 전에 약속한 기부처에 전달한다.
고진영은 밀알복지재단, 박성현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에 상금 5000만원씩 기부할 예정이다.
대회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고진영과 박성현이 “상금 절반씩 사이좋게 기부하게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 하루가 됐다. /연합뉴스

골프가 그리웠던 프로 男들 뭉쳤다

KPGA 미니투어 오늘 개최
양용은 주최 총 5차로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골프 투어 대회가 중단된 가운데 국내에서 남자 미니투어 대회가 개최된다.
스포티비골프다이제스트는 “25일 경기도 포천 삼발라컨트리클럽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선수 24명이 출전하는 에스킨 골프다이제스트 미니투어 1차 대회를 연다”고 22일 발표했다.
총 5차 대회로 진행되는 이 미니 투어는 2009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남자 메이저 대회(PGA 챔피언십)를 제패한 양용은(48)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양용은은 스포티비골프다이제스트를 통해 “코로나19로 투어가 중단된 상황에 우리 선수들이 도움이 될만한 일을 모색하다가 이번 대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선수가 동참하기를 희망하며 힘든 시기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상금은 선수들의 참가비에 골프다이제스트가 일정 액수를 더해 총상금 1470만원, 우승 상금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선수들의 참가비와 상금 일부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양용은 외에 김형성, 류현우, 이승택, 허인희, 홍순상 등 24명이 출전한다. 경기는 스포티비 골프 & 헬스 채널에서 6월 녹화 중계하며 양용은이 직접 해설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넘사벽’ 몸값

유럽 매체 亞 선수들 이적료 추경
손, 866억으로 2위와 649억원 차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유럽 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출신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몸값을 과시했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발렌시아)은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려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이적 소식과 이적료를 다루는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3일(현지 시간)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추정 이적료’ 순위를 정리해서 올렸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6400만유로(약 866억원)로 평가돼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값비싼’ 선수 1위에 올랐다. 2위를 차지한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도쿄-1600만유로)보다 무려 4800만유로가 많은 독보적인 선두였다. 특히 아시아 선수 ‘몸값 톱10’에 포함된 4명의 일본 선수들의 추정 이적료를 모두 더해 손흥민을 따라가지 못했다.
‘톱10’에는 나카지마를 비롯해 도미야스 다케히로(볼로냐-1350만유로), 구보 다케후사(마요르카-1350만유로), 미나미노 다쿠미(리버풀-1000만유로), 가마다 다이치(프랑크푸르트-800만유로)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몸값을 총액은 6100만유로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이 1350만유로(약 183억원)의 몸값으로 5위에 오른 가운데 황희찬(잘츠부르크-1000만유로)도 공동 7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